

천국에서 살려면 중성의 성품을 갖춰야

음양의 성품에서 속히 벗어나야 지구온난화도 대비할 수 있어

말세란 끝(末)자, 인간(世)자로 인간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세상을 말한다. 인간세상은 죽음이 있는 고로 마귀세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순결한 정조를 지켜 모두 하나님으로 거듭나면 마귀가 설 땅이 없는 고로 지상천국이 되는데, 바로 말세는 하나님만 사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과 불경 등 정통교의에 따르면, 말세를 당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순결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구 내부에 있는 불덩어리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불이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말세를 당하여 순결한 정조를 지키는 것과 지금 논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제공처가 되는 땅속의 불덩어리를 견주어서 설명하는 의도는 인간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에서 비롯한다. “별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갇혀 있어요. 이 지구 땅 덩어리 속에도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흠이 타지 않고 바다의 물이 안 마르죠? 바다의 물이 안 마르는 걸 보면 이 불덩어리가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세상 불이 되어서 타는 불이 돼버려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불덩어리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불이에요.” - 2001.7.21. 이긴자 말씀

위에 말씀 가운데 땅속에 불덩어리로서 하나님의 신이 지표면으로 나와도 타지 않는 불로 영원히 존재하려면, 지상의 만물이 음양의 성품을 벗고 고자와 같은 중성의 성품으로 변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격양무욕 생초지락(生初之樂)의 예언대로 20세기 후반에 동방 한국에서 출현한 정도령님이 감로해인으로 천지인(天地人) 만물을 중성의 하나님으로 회복시키고 있다(二十歲後 今時當 東方出現 結締解 : 생초지락). 그래서 음양의 성품이 약해진 마귀 욕을 뚫고 땅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점진적으로 바깥으로 나오오기기에,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땅속의 불은 물질의 최소단위인 원자 속에 중성자의 빛처럼 음양의 성품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 빛이 지상 위로 올라와 가득 넘칠 때에는 음양의 성품을 벗지 못한 죄인이나 마귀들은 뜨거워서 필립 뛰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마음 문을 열고 매일 예배를 보므로 피부 속으로 정도령님이 베푸시는 감로이슬성신의 빛이 스며들어 체질이 변한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오히려 상쾌하고 희열에 넘치게 하며 몸이 저절로 붓겨서 날아다니면서 살게 한다. 불경에서도 “감로의 광명이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성불한다(열반경 9권 90페이지)”라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감로를 내리는 자가 곧 생미륵불(生彌勒佛)이다. **하단에 계속**

수도자의 세속화

천재지변으로 이어져

말세를 당하여 순결한 정조를 지키는 것은 시집장가 가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 본보기로 절에 비구나나 천주교의 신부·수녀 독신생활을 영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의 고자는 마음으로 음란죄를 짓기도 하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른 고자는 마음의 고자가 된 자로 정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신선의 경지에 이른 자를 말한다. 마음의 고자가 된 사람은 음양의 성품을 벗은 하나님(부처님)이 된 자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그래서 불가(佛家)에서는 성불한 자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란한 마음을 초극하고 평생 거룩한 삶으로 정진한 수도자들이 영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근본 이유는 ‘나라는 것이 마귀요, 사망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마귀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년공부 도야로미타불된 것이다. 마조록(馬祖禪)에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풀이하면 기왓장을 아무리 갈아봤자 새까만 재만 흩날릴 뿐이지 거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승려들과 신부·수녀는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도에 이르지 못하고 운명하였지만, 결코 그들의 삶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분들의 순결한 삶과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하지 않고 그나마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불교

의 귀의자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비하면 요즘의 수행자들의 구도열정과 율법을 좇는 거룩한 수도(修道)는 많이 세속화되고 퇴색된 것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기상이변으로 지구촌이 지진과 홍수, 폭설 그리고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는 곧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지구온난화의 제1 원인은 땅속의 불덩어리가 솟아오르기에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문명의 이기(利器)로 인해 자동차 배기가스와 냉장·에어콘의 프레온 가스 등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겨 극지의 빙하를 녹이고 기상이변을 일으킨다고 한다. 하지만 고도의 학문을 논하는 완성자 정도령(正道令)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땅속에서 불덩어리의 열기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이다. 만약에 땅속의 불덩어리가 지구온난화의 제일 원인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지상의 오염물질에 의한 공해는 대기상층권으로 연기처럼 올라가 태양빛을 차단하는 그늘 역할을 하기에 오히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려 지구 빙하기로 돌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반대로 더워지고 있다.

극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고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은 보통 때라도 영하 20도 전후로 몹시 춥다. 따라서 아무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2도 내지 3도 정도로 올라가봤자 여전히 영하 18도이기에 얼음이 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가로2km 세로1.5km에 높이가 130미터나 되는 거대한 빙산이 100여 개가 무리지어 뉴질랜드의 바다에서 동동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빙하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암에서 전달되는 뜨거운 열기를 상징해오만 설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땅속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열된 빙하 밑바닥이 팽창되고 결국 남극의 거대한 얼음이 갈라져 빙산이 되어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온실가스의 배출이 극지방의 빙하를 녹이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지구 땅속의 불덩어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에 의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인다는 정도령(正道令)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덴마크인 엔센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8년 인공위성으로 북극 빙하 면적을 측정하던 이후 빙하 면적은 매년 변화했다.”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빙하 면적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 기간인 1978년부터 1996년까지는 감소 추세가 미미했으며 또한 그 이후인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은 감소 추세가 실질적으로 ‘제로(0)’에 가까웠다. 북극해 여름철 빙하가 10~20년 내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뒷받침할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기술했다. 출처: 「THE EPOCH TIMES」 유엔 기후온난화 핵심자료 북극 빙하...“실제로는 녹지 않고 있다” (2024년 02월 20일 기사)

그러므로 2024년 올해부터라도 지구 땅속에서 불덩어리의 열기가 북극의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면 빙하가 갈라지고 쪼개져서 바다 위로 떠돌다가 녹는 현상이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7>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생명과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과일인데 지조가 뚜렷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과이름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승리제단에 서 생명과이름을 먹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생명과이름을 먹고 그래야만 영원무궁토록 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

품격(品格)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편협(偏狹)해지고 고정관념(固定觀念)에 휩싸여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도 모르게 웬지 뻔뻔스러워지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우(待遇)를 받으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그러다가 끈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심통을 부리는 않는지, 전철에서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바라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훈계(訓戒)하려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이 높으면 몸도 따라 높기 마련이다. 남자는 마음으로 높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젊은 날을 아쉬워해서도 안 된다.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젊음을 이미 누렸으며, 그런 시절을 모두 겪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경륜(經綸)이 쌓이므로 더 많이 이해(理解)하고 배려(配慮)하고 너그러워야 하는데 오히려 아집(我執)만 강해지고 속이 좁아지는 사람이 많다.

마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성취감(成就感)을 느끼며 감사(感謝)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넓고 큰 마음을 갖는다. 반면 늘 열등감(劣等感)에 사로잡혀 패배의식(敗北意識)으로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不平不滿)을 늘어놓는 사람은 작고 닫힌 마음으로 살아간다. 자기보다 여기거나 약자인 사람에게 대우받으려 하고 편협해진다.

그렇지만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매사가 부대끼게 된다.

천덕꾸러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身體)와 환경(環境)에 휩싸여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도 모르게 웬지 뻔뻔스러워지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우(待遇)를 받으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그러다가 끈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심통을 부리는 않는지, 전철에서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바라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훈계(訓戒)하려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고 노력해야 한다. 노인의 장광설(長廣舌)과 훈수(訓手)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에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호감(好感)을 받는 비결이다. 회의(會議)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參席)하라. 집에서 침거(齷居)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忌避)하면 정신(精神)과 육체(肉體)가 모두 병든다.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待接)을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아랫사람들로부터는 존경(尊敬)과 환영(歡迎)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든 만큼 살아온 날들이 남보다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경륜을 쌓아왔으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아랫사람을 포용함으로써 나이 들이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다.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지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위고의 말처럼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대우받으려 하고 편협해진다.

감로해인 받아 신인합일 이루어야

21세기는 마귀세상이 영생하는 천국으로 화하는 말세이다. 말세의 때를 잘못 짚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도 2천년 전 그 당시가 말세인 줄 알고 시집장가 가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이다.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고 장가하면 꼭 죽으리라 또 아들 딸 낳으면 죽은 시체를 짐승들이 씹어 먹으리라’는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을 전능하신 구세주께서는 경고성 메시지로 전하신다. 구세주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죽음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마귀새끼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원죄가 되는 선악과이며 사람을 죽게 하는 마귀 영이라는 엄청난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선악과를 장착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존재는 고등동물에서 비롯하여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음양의 세계에서 음양의 영이 되는 마귀는 새끼 치는 성품이 있는 고로 지구 땅 위에 선악과를 무한정으로 쏟아내어 선악과가 되는 마귀가 자라서 생명을 전부 죽이고 있다고 한다. 즉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 죽이고 있다고 한다. 물질이 괜히 썩는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명을 마귀가 죽



▲ 구세주 보령 이후에도 한결같이 감로이슬성신이 내린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은혜를 부여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_ 요엘서 2:28)

이기 때문에 물질이 썩는다는 것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6천년 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긴자 구세주의 설교(2000.11.06. 말씀)를 통해서 밝혔다. 「일본농업신문」에 의하면 지구 면적이 한정된 상태에서 식량 생산이 무한할 수 없는 조건에서 1960년에 세계 인구 30억이 된 후 39년이 지난 1999년에 2배가 되는 60억이 되었으며, 2050년에는 2배인 12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화석연료 등 지구상 자원의 한계, 단위수확량과 농지면적 확대의 어려움에 따른 식량공급 불안 등 21세기는 한층 위기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인류의 죄를 담당코자 7년 옥고를 거의 마무리하던 시점에서 옥중 면회를 통해 거듭되는 예레미야서 16장의

언급이 시사하는 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생하는 세상을 이루겠다는 구세주 정도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마귀는 새끼를 치면서 인간의 죄성(罪性)을 증폭시키고 그 번식력이 강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멸절시키면서 피로 얼룩지는 역사를 전개하지만, 하나님은 음행을 통해서 새끼 치는 법이 없고 단지 분신으로 쪼개져 역사한다.

온 우주가 구세주 하나님의 분신으로 가득차는 시대가 말세요, 정도령님의 몸에서 나오는 감로해인 곧 하나님의 분신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맞이하여 신인합일(神人合一)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요, 그래야만 지구온난화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겠다.*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